

‘전남행복시대’ 비전·공약위원회 닷 올렸다

김영록 도지사 민선8기 ‘밈그림’ 민간 제시 대한 반영 메신저 역할 기획·정책 등 4개 분과 33명 구성

김영록 전남지사의 민선8기 비전을 마련할 ‘민선8기 비전·공약위원회’가 9일 전남개발공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영록 도사와 비전·공약위원회 위원장, 이견철 부위원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위원들은 민간 차원에서 제시한 대안을 도정 정책과제로 반영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된다.

민선8기 전남의 미래 100년의 밈그림을 그릴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4명과 부위원장 ▲기획분과(안전·환경·복지·인구·행정) ▲정책1분과(전략산업·에너지·일자리) ▲정책2분과(농수산) ▲정책3분과(관광·문화·SOC), 4개 분과별 7명씩 28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지역 원로 8명이 고문으로 참여한다.

최일 동신대 총장, 박민서 목포대 총장, 고영진 순천대 총장, 박명성 신시컴퍼니 예술감독이

공동위원장을, 이견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부위원장을 맡았다.

분과별 위원장으로 ▲기획분과 위원장에 박기영 순천대 교수 ▲정책1분과 위원장에 박복재 전남대 부총장 ▲정책2분과 위원장에 명동주 아트팜 대표 ▲정책3분과 위원장에 송경용 동신대 교수를 선임했다.

위원회는 민선8기 도정비전을 마련하고 공약 실천 방안 등을 종합·점검하는 한편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을 정책과제로 포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3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앞으로 한 달 동안 권역별 현장토론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한 후 그 결과를 종합·정리해 민선8기 비전·공약·정책과제 대도민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민선8기 비전·공약위원회가 전남개발공사 건물에서 동지를 들고 한 달 간의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며 “학계, 사회단체, 현장 전문가, 청년 대표 등 각계각층에서 선임된 위원들은 도민 의견을 잘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일 공동위원장은 “위원들과 함께 전남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전남도 ‘민선8기 비전·공약 위원회’ 현판식이 9일 전남개발공사 대회의실 입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최일 위원장, 이견철 부위원장, 박복재(정책1분과), 송경용(정책3분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남도 제공

광주공유센터 ‘울망졸망 공유장터’ 개최

12일 오후 2~5시

광주시는 광주공유센터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울망졸망 공유장터’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유와 환경을 접목시켜 공유를 통한 에너지 활용, 자원순환 등

시민들의 환경문제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공유마켓’에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나누고 판매하는 공유활동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집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 만 버려진 아까운 물건이나 수공예품을

직접 판매하는 부스를 통해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고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기부 또는 나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공유광주’ 앱 설치 이벤트, 장터 사진 혹은 체험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선우 기자

관광 신산업 예비창업자 적극 지원

도, 12팀 선정 최대 3천만원

전남도는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지역 관광 신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예비 창업자 12팀에 최대 3,000만원, 총 2억 3,500만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관광 신산업 창업 지원은 정보통신기술 기술혁신형, 시설기반형, 지역 콘텐츠 체험형 등 다양한 관광 분야의 참신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 육성해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예비창업자 30여명을 모집해 창업 아카데미와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12팀을 선발, 창업 협약식을 하고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했다.

선발된 예비창업자는 분야별로 ▲정보통신기술 기술혁신형 1팀 ▲시설기

반형 2팀 ▲지역 콘텐츠 체험형 9팀이다. 창업 분야와 평가 결과에 따라 팀당 1,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가운데 기술 혁신형으로 선정된 ‘모듈형 오픈 포토부스’는 지역 축제장과 주요 관광지에서 여행객이 최근 유행하는 순간사진을 체험할 수 있는, MZ세대 겨냥 사업계획이다.

또한 유휴 공간과 시설,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색 아이디어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고층의 한 폐교를 체험형 미술관으로 바꾼 뒤 게스트하우스와 캠핑장으로 운영해 문화와 여행을 연결하겠다는 계획과, 완도 청산도 26만 4,000여㎡의 유채밭을 활용해 유채관광과 함께 유채나물과 김치를 개발해 완도 섬 식탁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눈길을 끌었다.

최근 관광 추세인 ‘어강스’, ‘촌강스’ 등 전남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 다양

한 체험 콘텐츠도 포함됐다.

퍼플섬으로 유명한 신안 안좌도에 엠지세대 맞춤형 한옥스테이를 꾸며 체류 관광을 활성화하는 상품과, 장성에서 생산되는 채소와 과일을 활용한 주스를 관광객이 직접 만들어보며 색다른 피크닉 상품을 대어해주는 ‘촌머드스 촌크닉’도 특화 상품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창업자금 지원과 함께 관광신산업 창업 멘토단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멘토단을 활용한 컨설팅과 멘토링, 누리소통망 홍보 마케팅 지원, 성과 평가와 점검체계 구축 등 창업 과정 전반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예비창업 12개 팀이 성공적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행복노인전문요양원과의 만남을 환영합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내 부모님이 편히 쉬 수 있는 집이라는 이념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년간을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항상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1. 식사, 세면, 양치, 면도 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또는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2. 의료기관의 연계 및 촉탁의사 방문, 약 복용 관리, 외래병원 관리 및 진료 등 어르신들의 질병 노출 및 예방에 힘쓸 것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3. 간호처치,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4.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 개별적인 영양 보호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케어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에 따라, 신체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 문의. 062) 412-2000

NAVER 검색창에 학원114 을 쳐주세요

정기 브리핑

서삼석, 마린항만법 개정안 2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9일 마린항만 조성 및 안전관리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마린항만법 개정안은 마린항 선박대여업자의 안전 의무 강화 및 이용자 준수 의무를 법률로 정해 이용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태풍, 풍랑 등 기상이 악화된 경

우 마린항 대여업의 영업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등 제재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은 항만 재개발사업 시행시 항만부지 등의 공공유지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항만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서 의원은 “마린항 선박 안전과 밀접한 주요 항목의 법률 마련을 위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면서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재, 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가 산정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율) 의원은 지난 8일 국토부·한국도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동으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인 단체와 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분양가 산정을 위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서환식 LH 건설임대사업처 차장, 김동진 국토교통부 사무관(공공임대 분양전환 담당자), 김현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선임부회장, 박원희 화성동탄 LH26단지 비상대책위원장 및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인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적정한 가격의 분양전환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들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문제는 너무 큰 아픔이고, 집값 상승을 예상해 정책을 촘촘히 만들어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제도적 개선 방안과 현실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